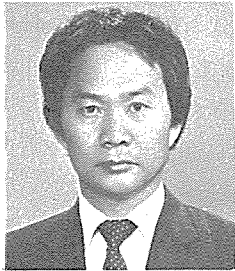


우유의 유통과 유가 제도의 개선



건국대 축산대학 교수
정 찬 길 박사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그 생산 및 소비증가면에서 모든 축산물중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야기되고있는 우유의 수급불안정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낙농산업의 성장을 살펴보면 1976년 199천톤 이었던 우유소비량은 년평균 19.5%씩 증가하여 1986년에는 1,155천톤에 이르렀다. 우유의 소비증가에 따라 생산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생산증가율은 19.4%로 소비증가율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우유수급을 살펴보면 소비는 년평균 18.2%가 증가한 반면 생산은 19%가 신장하여 생산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이에 합리적 가격조건의 전제하에 국내대체가 가능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수입량이 1982년에 3,687톤, 1983년 5,461톤, 1984년 5,033톤, 1985년 2,432톤, 1986년에 297톤이나 되어 국내 총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6월말 현재 국내 우유의 재고량이 7만2천톤에 달하였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우유공급과잉등 낙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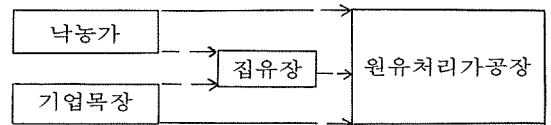
이 안고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우유수급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유수급의 안정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겠으나 필자는 우유의 유통과 가격제도면에서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코저 한다.

2. 원유의 유통과 개선방안

가. 원유의 유통현황과 문제점

유제품의 질과 신선도는 원유의 질에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유유통에 있어서 원유유통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원유유통의 체계화는 유제품생산비의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유가공 업체별로 집유가 일원화 되어 있는 현행 원유유통체계는 <그림1>에서와 같이 4가



<그림1> 원유의 유통경로

지의 유통경로가 있으며 수송수단으로 탱크집유차와 통집유차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를 이용한 통집유는 경제적 집유수송, 위생, 검사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원유의 계량과 유지방의 검사는 집유업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비공영화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낙농가의 집유선 이동중지와 업체별 집유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유선을 동결하므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역별 업체별 집유노선이 과다한 중복을 초래하였다. 즉, 시·군의 47.6%가 2개이상 업체, 서울·경기지역 50%의 시·군이 4개이상 업체들이 집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유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1kg당 집유비가 최저 9원에서 최고 31원으로 차이가 극심하며 평균 27.7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유비는 집유거리, 집유량, 낙농가의 밀집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낙농가가 집유면에서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더욱이 집유처리시설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낙농가는 분산, 원격화되어 있는 현상은 더욱 집유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유가 과잉생산되거나 과소생산될 때 낙농가와 유업체간에 납유거부, 검사시비, 유대지 불지연, 선대금요구, 집유경쟁, 집유거부, 유대가공품대납등 각종 시비가 발생하고 있고 원유계량 검사를 실수요업체가 수행함에 따라 업체별로 검사방법과 결과가 상이하여 검사결과와 계량에 대한 낙농가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끝으로 원유가 3~6월과 9~11월에는 공급이 부족되고 7~9월과 12~2월에는 공급이 과잉되는등 수급의 계절변동이 심하고 낙농가의 원유관리시설과 집유시설의 현대화를 저조로

원유의 위생적 관리가 저조하다.

나. 원유유통의 개선방안

원유의 유통개선에 대하여 그간 연구기관, 유업체, 협동조합, 생산자단체가 각종 방안을 제시하여 왔는데 공통적으로 집유일원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담당주체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 담당기구로 생산자조직, 낙농산업조정기구, 낙농위원회, 공사 등을 설립하여 집유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상호이해관계로 그 논쟁의 초점이 다양하다.

현재 우유처리가공장이 4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낙농가 단체가 10개소 유업체가 38개소이다. 38개소의 유업체는 협동조합 9개소와 민간 29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집유율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43.6%, 유가공회사가 56.4%이고, 납유처는 각각 36.6%와 63.4%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집유율과 납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집유일원화의 기본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집유수행주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상호공존상태에서 집유독점화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집유독점단체가 우유처리가공기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타우유처리가공업체 간 분배상의 이해가 집유일원화 실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집유는 일원화되되 집유담당기구는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유업체와 무관한 제3자적 기구가 천담하도록 해야한다. 유아기적 단계에서는 제3자적 기구는 정책적지원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구로 하고 기능의 정착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민영기구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의 주기능은 집유 및 배유임은 말할 나위 없지만 이외에도 원유의 등급화와 검사, 집배유시설 장비 요원의 운영, 낙농가와 유업체의 지도, 관련 생산요소와 기자재의 수출입 업무 전담, 유대결산등을 관장케하고 이들 주

요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낙농가, 소비자, 관련업계, 학계, 정부, 집유주체등으로 구성된 가칭 우유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의 운영과 원유수급안정을 장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우유수급안정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낙농가의 검사비, 수수료, 집유비, 유처리가공업체 배유보증금, 젖소도입 분양차액, 수입유제품의 관세일부와 판매차액 농안기금등으로부터 조성되어야 한다.

집유일원화와 이의 수행을 제3자적 단일기관이 담당하여 1986년 12월기준 1kg당 집유비가 최저 13원에서 최고 31원으로 18원이나 되는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집유비를 전유업체의 평균집유비인 1kg당 18.6원을 유지하게 되면 연간 약 4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1kg당 15원까지 유지하게되면 약 8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집유비 절감외에도 집유체계의 통합적 관리, 원유수급안정, 원유의 물적유통효율증진, 원유가격안정, 원유품질개선, 유제품의 생산안정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현행 원유수송은 80%정도가 무개화물트럭에 의한 통집유이기 때문에 원유의 유질보지를 위해 전체의 원유유통과정을 냉장탱크집유차에 의한 콜드체인화 하여야 한다. 또한 낙농가의 불만과 불신의 소지를 안고 있는 원유의 계량과 검사 역시 공공성, 공개성, 그리고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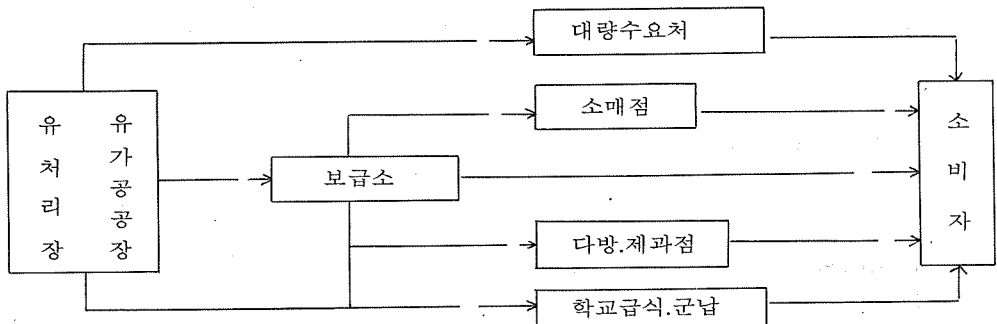
성을 거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제3자적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기반조성이 달성되어야 만이 낙농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위를 높일수 있을 것이다.

3. 시유의 유통과 개선방안

가. 시유의 유통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유제품 소비구조는 시유가총우유 소비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시유의 유통구조는 <그림2>에서와 같이 보급소를 통해 배달원의 가정배달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한편 아파트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슈퍼등을 통한 고정판매도 빠른 속도로 신장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유통경로로 학교급식과 군납이 있으며, 이들은 유처리가공으로부터 직접 유통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1970년에 시작된 이래 1986년에는 국민학교 우유급식 대상학생을 종전에는 2,921,300명에서 3,838,400명으로 대폭 늘려 어린이 체위향상은 물론 우유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시유는 대부분이 보급소와 배달원을 통한 최종 소비자인 가정에 배달되고 있어 유통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카톤팩 200cc의 공장도가격이 120원이며 최종 소비자인 가정에서는 160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림2> 시유의 유통경로

가정의 입장에서는 지불가격의 25%에 해당하는 40원의 높은 유통마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슈퍼에서 직접 구입하면 1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시유의 판매집중도가 아직도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조제분유, 치즈,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에 비하면 상위 4개업체의 집중도는 낮은편이지만 아직도 50%정도의 집중도를 시현하고 있다.

시유판매의 도매기구나 대형소매점에 의한 직거래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보급소를 통한 배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협의나 담합에 의한 균일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공등의 노력이 결여되고 있어 소비자는 공급자로 부터 간접적 편익향유에 불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바 없다.

나. 시유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근래에 우유의 공급과잉이 1984년 이후 계속되어 현재 분유의 재고가 7만2천톤에 달하여 만성적인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유수급의 안정도를 제고하기위해 단기적인 미봉책 보다는 우유시장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생산구조개선 정책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유의 유통구조개선에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주안점은 음용유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유통대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유통마진의 감축에 의한 저렴한 소비자 지불가와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간접편익이 부여되어 소비인구의 확대에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어린이들 가운데 우유급식을 의외로 빨리 중단하고 있는것은 선진외국의 어린이들이 대개 18세에 이르기까지 우유급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5인가족이 하루 200cc의 우유를 마시

기 위해서는 1개월에 약 24,000원의 유대를 가계비 가운데 음식비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어린이가 우유를 계속 마시기 위해서는 유대는 음식비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음용유의 유통구조는 고소득층에게는 강도있는 홍보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보다 저렴한 유가로 우유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보급소를 통한 배달원에 의하여 유통되는 경로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대형소매기구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유처리가공장에서 슈퍼마켓이나 슈퍼체인으로 직접 연결되는 유통경로를 정착시켜 가정배달을 지양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정배달과 슈퍼가격이 각각 200cc의 카톤팩당 160원과 180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획일화 하고 소비자 가격도 130원내지 140원선에서 형성될 수 있어 소비촉진에 지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우유처리가공업계에서 지나치게 근시적이며 신경질적 반응이전에 장기적이며 발전적인 관점에서 깊이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4천만이 넘는 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2,000달러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만여 낙농가가 40만두의 젖소로 100만여톤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우유공급과잉에 따른 유업체의 경영압박과 낙농가에게는 유대의 지불지연등으로 고통을 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상존하는 우유수요와 자연증가에 대한 수요창출의 열매만을 따먹던 유업체는 물론 경영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도모하여 동일한 생산비로 보다 많은 양의 우유를 또는 동일한 유량을 보다 적은 생산비로 생산을 이룩하는등 저렴한 원유생산에 등한했던 낙농가와 단기적인 가격정책 보다는 장기적인 생산구조 개선정책을 수립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정책당국 모두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우유소비량을 식생활패

이 500달러 수준에 우유소비량은 22.3kg이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1975년에 동일한 소득 수준에 도달하여 4.6kg의 우유를 소비하여 4.8 : 1의 비율을 보였고, 또한 일본이 1970년에 2,000달러의 소득수준에 이르러 우유소비량이 50.1kg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에 동일한 소득수준에 우유소비량이 20.5kg에 달하여 2.4 : 1의 비율을 보여 상대적 소비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절대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원유의 생산비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즉 1982년 현재 원유 1kg당 가격이 일본 289원, 뉴질랜드88원, 미국 219원, 서독이 199원으로 우리나라의 313원에 비하여 10%에서 72%정도 저렴한 수준에 있음이 또한 잘 입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저렴한 원유생산 및 유통구조는 물론 저렴한 시유소비자 가격을 실현할 수 있는 시유유통구조 개선체제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유소비촉진사업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낙농가, 유업체, 정책당국이 혼연 일체가 되어 거시적으로 홍보비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사용, 다양한 우유소비의 홍보매체개발, 각종 판촉활동 전개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낙농산업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가제도의 실상과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제도는 원유생산비조사에 근거하여 정부고시가격인 1kg당 322원을 기준으로 유량과 유지방율에 따라 일정을 가감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가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캐나다, 영국, 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등 낙농선진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유성분 및 위생유질 차등가격제를 채택할 것을 정책당국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유생산실태와 원유유통체제로

미뤄서 볼때 이와같은 선진국형의 섬세한 제도를 우리의 원유생산기술이 선진국수준까지 충분히 성숙되기 이전에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우유의 계획생산제의 도입을 시도할때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물론 유성분 및 위생유질 차등가격제는 가장 이상적인 가격제도 이지만 우리의낙농업이 낙농선진국에서와 같이 착유과정에서 많은 목장의 위생상태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집유과정도 대부분의 원유가 보냉탱크에 의해 집유되는 콜드체인에 의해 취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가격제도의 도입은 낙농가의 우유취급 위생상태 제고, 집유일원화와 콜드체인화, 납유자와 수유자가 합의할 수 있는 원유검사와 계량의 공영화 등 그 기반조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도되어야 한다.

한편 원유의 계절별 가격차등제의 도입은 현실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유의 수급은 그 계절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원유가 과잉되는 7~9월과 12~2월 그리고 원유가 부족되는 3~6월과 9~11월의 기간을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적용하고 이 차등가격은 연동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현재 유업체별로 집유함에 따라 집유비가 평균개념으로 생산비에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집유의 일원화와 동시에 개별 낙농가의 원유생산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원유생산비에 직접 반영되어 유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유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측면에서 생산농가의 밀집화, 경영의 씨스템화, 원유예측생산제의 도입, 생산량활당 및 계약생산제의 채택이 용이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집유비는 낙농가의 입지에 의한 수송거리, 낙농가의 지역적밀집도, 낙농가의 일시 납유량의 크기에 따라 큰 차이

턴이 유사한 한·일간의 비교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일본은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들이 집유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동일한 율의 집유비가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다. 따라서 정확한 원가개념하에서 개별 낙농가별 수송거리, 납유량, 밀집도 등의 여건들이 평가 반영되어

집유비가 낙농가들에게 차등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유리한 입지적 여건과 효율적 경영체계를 소유한 낙농가들의 선의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낙농가별 사육두수의 조정, 조밀사육지역의 조정, 생산요소의 저렴화등의 장기적 구조개선을 성취할 수 있다.

〈우유토막상식〉

○우유에 대한 3가지 오해

1985년 12월 보건신보에서 전국 5대 도시의 30-40대 주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주부들이 우유에 대한 몇가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우유는 고소할수록 영양이 높다.

⇒고소한 맛과 영양가와 는 무관하다. 우유는 고온 장시간살균시 단백질변성이 일어나는데 살균온도와 시간에 따라 변성정도가 틀러지고 이에 따라 고소한 맛의 정도가 틀러지게 되어있다.

(2)우유는 진할수록 영양가가 높다.

⇒우유의 농도는 유고형분 함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수준인 12%이므로 외국과 큰차이가 없다.

(3)낙농가나 메이커에서 우유에 물을 탄다

⇒우유의 유통과정상 물이 들어 갈 수 없다. 생유를 처리시 가공과정은 채취후 살균과 지방질분쇄 뿐이다. 또한 전문검사기관이 있어 철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